『우복집』의 「잡저」에 나타나는 정경세의 시대정신

The Zeitgeist Theory of Kyung Sae Chung based on *Ubokjip* and Japjuh

권 용 인 (Kwon, Yong-in)*

◁ 목 차 ▷

1. 서 론
2. 『우복집』의 구성과 내용
3. 『우복집』 권14 「잡저」의 분석
3.1 군자의 수양과 노인 공경
3.2 선현 존숭과 선비의 처신
3.3 의(義)의 추구와 사회풍속의 개혁
3.4 호국방책과 무인의 자세
4. 결 론
<참고문헌>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복집』의 「잡저(雜著)」 중 14편의 분석을 통하여 우복을 지배하고 있는 그의 시대정신을 귀납적으로 유추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을 첫째, 군자의 수양과 노인 공경. 둘째, 선현 존중과 선비의 처세. 셋째, 義의 추구와 사회풍속의 개혁. 넷째, 호국방책과 무인의 자세 등의 네 가지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자는 항상 학문을 좋아하고 그릇된 일을 하지 말며 혹 잘못을 저질렀으면 즉시 깨닫고 반성하여 종신토록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행방법으로 항상 겸양하고 성실할 것을 권면하였으며, 공공장소에서 좌석에 나이 순서대로 앉도록 하여 노인을 공경하도록 하였다.

둘째, 후생들이 선현의 도(道)를 높이 떠받들고 섬기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원(書院)건립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선비는 공직에 있을 때는 죽기를 각오하는 충분(忠憤)을 가지고 임해야 하지만 초야(草野)에 있을 경우에는 부화뇌동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면하였다.

셋째, 문헌기록에 의해 잘못된 현상을 지적하고 수정토록 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으며, 잘못된 사회풍속에 대하여는 사회개혁 차원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왜적(倭敵)의 침입에 대한 방책으로 성을 축조하여 요새를 구축하고 양곡을 비축할 것과 사대부에게는 忠과 義로서 분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내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병모집과 군량 및 자금 모금,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武人은 오직 나라를 위해 의롭게 죽는 것을 덕목으로 여겼다.

要語: 정경세, 『우복집』, 군자, 노인, 서원, 선비, 풍속, 사회개혁, 호국방책, 무인

---

*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kwoninsan@hanmail.net)
접수일: 2014년 9월 13일 최초심사일: 2014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7일

www.kci.go.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ogically inference Ubok Kyung Sae Chung's zeitgeist theory and explore his belief by analyzing 14 excerpts from his widely known works Japjuh in *Ubokjip*. I can conclude that there are four major focuses on his studies. First, the needs for wise man's moral training and importance of building admiration for the elders. Second, respect for ancient sages and recommended behaviors as a scholar. Third, the pursuance of loyalty and the reformation of the social culture. Last, the attitude that a patriot and a soldier should have towards the country. Of the focuses mentioned, Ubok Specifically emphasized on the below in his theory.

- Emphasized that scholars should enjoy learning and should always try to avoid physical and mental wrongdoing. He also advised that scholars should remain humble and show diligence in everything they do.
- Suggested to build lecture halls to revere and serve the ancient sages, and also advised scholars the ways to protect their loyalty while they are in public service.
- Provided the fellow scholars the directions to develop while attempting to reform the culture by correcting any inappropriate social behaviors.
- Promoted to reserve crops and to build fortresses to protect the country from any foreign enemies. Also suggested to draft solders and collect funds to minimize the risk for rebellions, and induced people to join the military voluntarily. He considered death while in duty as the most important virtue that solders should have.

Key words: Kyung Sae Chung, *UbokJip*, Old man, Sage, Lecture hall, Scholar, Culture, Social Reformation, National defense, Solders

www.kci.go.kr

1. 서 론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1563~1633, 이하 '우복'이라 칭함)는 1563년(명종 18) 9월 14일 9월 14일에 상주군 청리면 율리에서 태어나 1633년(인조 11) 6월 6일 향년 71세에 세상을 떠났다. 선생의 자(字)는 경임(景任), 어려서의 호(號)는 하거(荷渠), 또 승성자(乘成子)라고 하였으나, 나이가 들어서 우북산(于北山) 속에 별업(別業)을 짓고 우북산의 이름을 우복산(愚伏山)으로 고친 다음, 우복(愚伏)으로 호를 삼았으며 혹은 석총도인(石漵道人)이라 칭하기도 하였다.[1)]

유성룡(柳成龍)의 문하에서 수학한 우복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주가 있어 7세에 『사략(史略)』을 읽고 8세에 『소학』을 배웠는데, 불과 절반도 배우기 전에 문리가 통해 그 나머지 글은 스스로 해독했다고 한다.[2)] 또한 우복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자질이 있었고 타고난 성품이 매우 뛰어나 겨우 말하고 글 읽을 나이에 벌써 문장 속의 심오한 뜻을 깨달았으며 속학(俗學) 외에 힘쓸 곳이 있음을 알고서 '종선여등시(從善如登詩)'를 읊어 스스로를 권면하였다. 정신과 기운이 숙신(肅信)하고 말과 거동이 현저하게 뛰어났으며, 빼어난 자태와 정밀하고 넓은 식견은 뭇 아름다움을 아울러 포괄하였다. 우복은 성조(聖朝)가 창성하고 현달하는 때를 만나 영명하고 순수한 자질이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양이 이미 두터웠고 조예가 매우 깊으며 학문의 정밀하고 순수함과 도덕의 크고 넓음에 대해서는 글로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긴 세월 너나없이 우복을 우리 도의 종사(宗師)로 삼은 것은 실로 온 나라의 공변된 의론이니, 그의 높고 깊은 도덕의 아름다움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3)]

---

1) 『우복집』 별집 권10, 송준길 撰, 우복선생행장.

2) 창석(蒼石) 이준(李埈)이 지은 선생의 묘지에 "말을 할 줄 알면서부터 『소학』을 읽었는데, 겨우 1권을 다 읽었을 뿐인데도 그 나머지는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이해하였으며, 글을 한 번 보면 이내 외웠고, 은미한 말과 깊은 뜻도 한 번 보면 그 뜻을 깨달았으며, 글을 쓰면 그 내용이 아름다워 모두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말들이었다."라고 하였으니, 선생의 文才가 나이에 비해 일찍 이루어진 것은 家學의 연원을 이어받았기 때문임을 상상할 수 있다.

3)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20년 계미(1883. 광서 9), 좌목.

www.kci.go.kr

우복의 학문연원은 주자를 종주로 퇴계학맥의 적통(嫡統을 계승한 성리학 정통주의자로서 성리학 이외의 노장사상과 선학, 육왕학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는 평소에 주자(朱子)를 흠모하고 존경했으며 스승 유성룡으로부터 1604년에 전해 받은『주자서절요(朱子書切要)』를 깊이 연구하고 1611년 49세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朱書를 편람, 정독해 후진 교육이나 조의(朝議), 혹은 경연에서 진강할 때 주서에 근거를 두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가 저술한『양정편(養正篇)』은 주자가 편찬한『소학과』 표리가 되고,『주문작해(朱文酌解)』는 이황이 편찬한『주서절요(朱書節要)』와 표리가 되는 것으로 주자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이다.[4]

우복에 대한 학계의 연구로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우복 문집을 축소 영인본으로 간행하였는데 이우성이 총서(總敍), 유정동이 유학, 정재각이 정치, 최진원이 문학, 이지형이 생애를 각각 맡아 해제를 실었다.[5] 이 자료에다 윤사순의 성리학, 유권종의 예학사상, 김시업의 우산동천과 자아, 이장희의 임진외란 활동에 관한 논고들을 첨부하여 연구서[6]를 간행하였고, 윤천근[7]은 우복의 인물 평전을 발간하였다. 고영진[8]은 예학과 예론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사회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서인한[9]과 이영춘[10]은 인조 대에 일어난 예론 논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우복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최재목[11]은 우복을 비롯하여 상주지역의 퇴계학맥을 다루었고, 최정묵[12]은 우복의 성리설의 기본 입장을 밝히며 율곡학을 비판하였다. 김학수[13]와 설석규[14]는 서원

4)『우복집』별집12, 부록, 正祖의 賜祭文.
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우복집』(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7).
6) 우복선생기념사업회 편,『우복정경세연구』(서울: 태학사, 1996).
7) 윤천근,『실천적 예학자 정경세』(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7).
8) 고영진, "17세기 전반 남인학자의 사상: 정경세·김응조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8(1992).
9) 서인한, "인조초 복제논의에 대한 소고,"『북악사론』1(1989), 95-137.
10) 이영춘, "잠야 박지계의 예학과 원종추숭,"『청계사학』7(1990).
11) 최재목, "우복 정경세와 상주지역의 퇴계학맥,"『한국의 철학』28(2000), 1-30.
12) 최정묵, "우복 정경세 성리설의 기본입장과 율곡학 비판,"『율곡사상연구』((사)율곡연구원) 14:0(2007), 97-113.
13)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www.kci.go.kr

에서 배향 할 때의 위차 문제를 둘러싼 퇴계학파 내의 갈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장승구[15]는 우복의 성리철학, 경세론, 예학을 고찰하였고, 우인수[16]는 정치사회적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이라는 하나의 인식 틀 속에서 우복의 관직생활과 외침에 대한 대응을 다루었다. 이상과 같이 우복의 예학과 예론, 퇴계학맥과 퇴계학파 내의 갈등 조정, 정치적 위상 등에 관한 사상과 철학,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우복집』「잡저(雜著)」중 14편의 분석을 통하여 우복을 지배하고 있는 그의 시대정신을 귀납적으로 유추하는데 있다.

2.『우복집』의 구성과 내용[17]

우복의 문집은 사위인 송준길(宋浚吉)과 사손(嗣孫)인 정도응(鄭道應)의 주관하에 가장(家藏) 초고(草稿)를 20권 10책으로 정리 편차하여 1657년(효종 8)에 상주(尙州) 도남서원(道南書院)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원집 초간본』은 서발(序跋)이나 부록문자(附錄文字) 등이 전혀 없이 저자의 시문(詩文)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원집에서 빠진 유문과 연보(年譜) 등 부록문자의 편차도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연보는 송준길이 1633년부터 초(草)하기 시작해서 본집과『승정원일기』등을 상고하여 1644년경에 일단락되었으며 아울러 행장(行狀)도 지어 이를 바탕으로 1658년 송시열에게 시장(諡狀)을 부탁하고, 조경(趙絅)에게 신도비명(神道碑銘)을 부탁하여 문집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연보에 의하면 1789년(정조 13)에 정조(正祖)의 명으로 6세손 정종로(鄭宗魯)가 원집(原集)과 별집(別集), 연보를 올려 을람(乙覽)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의 별집과 연보는

14)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Ⅱ): 여강서원 치폐전말,"『퇴계학과 한국문화』45(2009), 311-371.
15) 장승구, "우복 정경세의 철학과 경세론,"『퇴계학과 유교문화』50(2012), 1-28.
16) 우인수, "우복 정경세의 정치사회학적 위상과 현실대응,"『퇴계학과 유교문화』49(2011), 99-136.
17) 金圻彬,『한국문집총간해제』(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

www.kci.go.kr

미간행 정고본(定稿本)이었으리라 추측된다. 그 뒤 후손 정상리(鄭象履) 등이 정종로의 유지를 따라 연보와 부록을 포함한 별집을 8권 4책으로 편차하여 1821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1844년 우산서원(愚山書院)에서 원집을 목판으로 중간(重刊)하였는데 이때 초간본과 내용이나 편차의 차이가 전혀 없이 판식(板式)의 형태만 바꾸어서 간행하였다.『원집중간본』에는 “숭정기원후4갑진우산서원중간(崇禎紀元後四甲辰愚山書院重刊)”이란 간기(刊記)가 실려 있다.

별집의 중간은 저자의 관계 사실이 초간본에 모두 수록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중(門中) 부로(父老)가 발의하여 정하묵(鄭夏默)이 12권 6책으로 증보 재편(再編)해서 1899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별집중간』정하묵의 중간발(重刊跋)에 의하면 이 계획은 189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간에서 빠진 시장(諡狀)과 묘표(墓表), 언행록(言行錄)을 증보하고, 2권 분량의 소자쌍행(少字雙行)으로 되어 있던 연보는 약간의 사항을 추가한 뒤 대자(大字)로 바꾸어 4권으로 재편하였다. 원집과 별집 초간에서 누락되었던 시문 3책은 그대로 가장(家藏)해 두고 수록하지 않아 결국 부록 부분만 증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복집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문집은 원집 20권, 별집 12권 합16책으로 되어 있다. 원집은 권수에 총목록이 있다. 권1~2에는 차귀거래사(次歸去來辭) 1편, 시(詩) 170여 수가 실려 있는데, 시는 연대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준(李埈)은 ‘우복의 시는 한 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평’하였는데 본집에도 역시 이준과 주고받은 시가 가장 많다. 그 외에 조사(詔使)의 차운시(次韻詩)가 있으며 2권말에는 만시(挽詩)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권3은 주문(奏文), 교서(敎書), 자첩(咨帖), 소차(疏箚)이다. 그중「진위주문(陳慰奏文)」은 1630년(인조 8)에 여진(女眞)의 침입을 당한 명나라를 위안하는 주문이다.

권4~7은 권3에 이어서 소차 90여 편이 연도순으로 실려 있다. 임란(壬亂)과 가도(椵島) 문제 및 상례(喪禮)에 관한 내용, 사직소(辭職疏) 등 신상에 대한 것들이 주류이다. 그중「홍문관팔조차(弘文館八條箚)」는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급선무 여덟 가지를 진달한 것이며,「옥당론시무차(玉堂論時務箚)」는 절용(節用),

www.kci.go.kr

치병(治兵), 안민(安民) 등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8은 의(議), 계사(啓辭), 정문(呈文)이다. 그중 「청거혼조소상선묘조자계(請去昏朝所上宣廟祖字啓)」는 선조 시호의 '조(祖)'자는 광해군 때에 잘못 올린 것이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청금단관절계(請禁斷關節啓)」는 사송(詞訟)이 뇌물에 따라 결정되는 폐단을 엄금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권9~13은 서(書)이다. 유성룡, 이원익, 이덕형, 이호민, 장현광, 김장생, 송준길 등 당대의 명사들과 주고받은 편지이다. 특히 김장생과 주고받은 편지는 예설(禮說)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살필 수 있는 내용이며, 송준길과 주고받은 편지는 경전(經傳) 해석에 대한 문목이 대부분이다. 권14는 잡저(雜著)이고, 권15는 序, 記, 跋이다. 이 중 「이지봉채신록변의(李芝峯采薪錄辨疑)」는 이수광의 처세철학 및 수양론에 대하여 저자가 논변한 것이며, 「김사계경서의의변론(金沙溪經書疑義辯論)」은 사서(四書)의 의의(疑義)를 김장생과 논변한 것이다.

권16은 표(表), 전(箋), 계(啓), 격(檄), 상량문(上樑文), 축문(祝文), 제문(祭文)이고, 권17은 신도비명(神道碑銘)이다. 신도비명은 권벌, 김성일, 정윤복, 이주, 곽준, 윤선각 등에 대해 지은 것이다. 권18은 묘갈명(墓碣銘), 묘표(墓表)이다. 한백겸, 이수인, 김진, 김충, 김광엽, 정여관, 신우, 노직 등에 대한 것이다. 권19는 묘지(墓誌)이고, 권20은 행장(行狀)이다. 행장은 정여관, 류성룡, 이덕형, 한준겸 등의 행장이다.

별집은 권수에 총목록이 있으며 기본적인 편차는 원집과 같다. 권1은 원집 간행시 누락된 시(詩)와 교서, 자첩(咨帖), 소차, 사장(辭狀), 계사, 書, 序, 논(論), 습유(拾遺)이다. 권2는 『사문록(思問錄)』, 『양정편(養正篇)』이다. 『사문록』은 『주역』, 『예기』, 『의례』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적은 것이며, 『양정편』은 명 도희영이 편찬한 『향교예집』[18]의 「동자예편」을 간추려 약간 수정한 것이다. 권3은 『경연일기(經筵日記)』로 1623년에서 1629년까지 경연에서 있었던 군신간의 문답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인데 「경설강의(經說講義)」는 저자가 수정(手定)한

18) 『우복집』 권13, 「答宋敬甫問目」.
"鄕校禮輯。乃明儒屠羲英所著。蓋就瓊山儀節而增添之者。"

www.kci.go.kr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오기가 있다고 범례에서 밝혔다. 권4~12는 부록인데, 권4~7은 연보로 송준길이 처음 찬(撰)한 구본(舊本)을 그대로 싣고 기타 누락된 사항이나 이후의 사시(賜諡), 향사(享祀) 등의 기사를 추보(追補)로 실어 놓았다. 권8은 문인과 손 정도응이 지은 『한거잡기(閑居雜記)』를 합한 언행록, 권9는 묘지명과 신도비명, 묘표이며, 권10은 송준길이 지은 행장, 권11은 송시열이 찬한 시장(諡狀), 권12는 사제문, 제문, 만사, 봉안문 등이다.

3. 『우복집』 권14 「잡저」의 분석

우복은 31편의 잡저를 저술하였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된 「愚巖說」, 「臨川說」, 「南軒說」, 「潛室說」, 「朝天記事」, 「復者朝服」, 「哭先復・復而後行死事」, 「灰隔」, 「燔石灰記事」, 「外棺用松脂方」, 「李芝峯采薪錄辨疑」, 「再辨」, 「李芝峯采薪錄辨疑三辨」, 「金沙溪經書疑問辨論」, 「誓衆文」, 「與鎭岑一鄕文」, 「募粟文」 등[19]은 제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의 대상 잡저들은 「斷指者說」, 「金守初字辭」, 「拙齋銘」, 「記夢」, 「記聞」, 「雜記」, 「攷事撮要考誤」, 「道南建院通文」, 「榜諭江陵一鄕文」, 「城山山城收穀文」, 「稧中爲高年設宴請文」, 「答左道疏會文」, 「通諭道內士子文」, 「榜諭場屋士子文」 등이다.

우복의 주관적이거나 창의적인 14편의 잡저들을 대상으로 ① 첫째, 군자의 수양과 노인 공경, ② 둘째, 선현 존중과 선비의 처세, ③ 셋째, 義의 추구와 사회 풍속의 개혁, ④ 넷째, 호국방책과 무인의 자세 등의 관점 하에 고찰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3.1 군자의 수양과 노인 공경

우복은 친구 김지복이 성년에 이르러 상투를 틀고 갓을 쓰게 하던 의례를 맞이

19) 우복선생기념사업회 편, 「우복정경세선생연구」 (서울: 태학사, 1996), 29-220.

www.kci.go.kr

하며, 그에게 수초(守初)라는 자(字)를 주고 권면(勸勉)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래의 성품은 착하다. 그러나 어둡고 미친 것 같은 망령된 사람들과 어울려 미혹에 빠지게 되면, 좋아하고 미워함에 절도가 없어지고 물욕만을 추구하게 된다.

회복함이 쉬운 것은 아니지마는 지키는 건 더더욱 어려우니, 지키는 것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서 善이 떠나가게 된다. 항상 학문을 좋아하고 잘못한 일을 하지 말며 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즉시 깨닫고 죽을 때까지 다시 하지 않기를 권면한다.

우리들은 어리석은 소인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 잘못을 반성하지만 저녁이 되면 이미 다시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일은 아예 하지를 말고, 회복하면 다시는 잘못을 하지 마라. 이것을 오랜 세월 지킨다면 성실해지는데 그 요령은 오직 공경해야만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너의 字에 守자를 붙여 그대의 덕을 표한다. 옛날 공자에게서 칭찬을 받은 안회처럼 학문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으며,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너 또한 안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20]

우복은 신식에게 군자의 수행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1] 자기 자신을 낮추어 뜻을 공손히 하고 입 다물고 고개 숙인 채 지내어서, 아무것도 없어 속이 텅 빈 척하며 명백하고 곧게 전진하는 것이다. 존형께서 관직 얻을 생각조차 아니 했는데, 더더구나 명성 얻길 구하였겠는가? 바깥에서 보면 비록 홑옷이건만 그 속에 비단옷을 입고 있었던 것과 같구나! 생각건대 존형 덕이 날로 높아지는 것은 졸(拙)[22]하게 한 공 때문이리! 교활하고 영특한 자들은 외양만 꾸미기를 힘쓰고 달콤한 말 부드러운 낯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총애 얻길 힘쓰며 심한 경우 기교 부려 남 속이려 하지만 교묘하게 꾸밀수록 더욱 서툴러져

20) 『愚伏集』 권14 雜著, 金守初字辭.
21) 『愚伏集』, 拙齋銘.
22) 신식(申湜, 1551~1623)이 예를 좋아하고 학문에 독실하였으므로 선조(宣祖)가 몹시 아끼면서 "신식은 졸(拙)하다."라고 평하였는데, 신식이 서재의 이름을 졸재(拙齋)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복이 졸재명을 지었다.

www.kci.go.kr

속속들이 모두들 다 드러난다. 겸손하고 공손하며 삼가고 성실한 자세, 이것이 군자의 수행 방법이다.

<표 1>『우복집』 권14,「잡저」의 분석 내용

번호	제 목	번호	분석대상	관련내용
1	愚巖說			
2	臨川說			
3	南軒說			
4	潛室說			
5	斷指者說	1	斷指者說	③
6	金守初字辭	2	金守初字辭	①
7	拙齋銘	3	拙齋銘	①
8	朝天記事			
9	記夢	4	記夢	①
10	復者朝服			
11	哭先復 復而後行死事			
12	灰隔			
13	燔石灰記事			
14	外棺用松脂方			
15	記聞	5	記聞	④
16	雜記	6	雜記	④
17	攷事撮要考誤	7	攷事撮要考誤	③
18	李芝峯采薪錄辨疑			
19	李芝峯采薪錄辨疑再辨			
20	李芝峯采薪錄辨疑三辨			
21	金沙溪經書疑問辨論			
22	誓衆文			
23	與鎭岑一鄕文			
24	募粟文			
25	道南建院通文	8	道南建院通文	②
26	榜諭江陵一鄕文	9	榜諭江陵一鄕文	③
27	城山山城收穀文	10	城山山城收穀文	④
28	稧中爲高年設宴請文	11	稧中爲高年設宴請文	①
29	答左道疏會文	12	答左道疏會文	②
30	通諭道內士子文	13	通諭道內士子文	④
31	榜諭場屋士子文	14	榜諭場屋士子文	③

www.kci.go.kr

우복은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로 공공장소에서 좌석에 앉을 때 나이 순서대로 앉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삼았다. 그는 『예경(禮經)』에 나오는 성주(成周)시대의 제도[23]를 사례로 들면서 "노인을 노인으로 대우하는 것은 아버지에 가깝기 때문이고, 연장자를 연장자로 대우하는 것은 형에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서 "우리가 사는 향당(鄕黨)의 부로(父老)들 가운데 고년(高年)이 되신 분이 다섯 분이고, 희년(稀年)이 되신 분이 열두 분이며,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검버섯이 핀 분은 아주 많으니, 이것은 말세의 상서(祥瑞)이면서 온 향당의 경사이다. 이에 삼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대략 술상을 차려서 이달 20일에 고을의 남쪽에 있는 수정당(水晶堂)의 시냇가에다가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비록 모시고 서서 역사(役事)를 듣고 번갈아 가면서 두(豆)의 숫자를 더하는 절차는 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항렬을 나누어 순서대로 앉기를 한 결 같이 나이에 따라서만 하고 작위(爵位)가 있고 없음은 모두 논하지 않는다면, 三代 시대의 나이 든 분을 숭상하던 풍조를 다시금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 말석에서 시중을 들면서 술잔을 올리고 축하하는 말을 바쳐 노인을 공경하는 정성을 펼 수 있을 것이다"라며 노인들을 위한 잔치에 참석하기를 청하였다.[24]

또한 그는 자기의 꿈 이야기를 빗대어 좌석에 오를 때는 나이 순서대로 해야 함을 강조한다.

> 병진년(1616, 광해군 8) 2월 19일 새벽에 꿈속에서 어떤 한 곳에 이르렀는데, 옥성서원(玉成書院)의 강당과 같았으며, 공성(孔聖)의 제사를 받드는 집이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무늬가 있는 비단옷 몇 벌과 보대(寶帶)를 가지고 나와서 펼쳐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공성께서 남겨 놓은 의복으로, 제사를 지낼

23) 매년 10월이 되면 黨正이 예로써 백성들을 모아 序에서 술을 마시게 하되, 나이 순서에 따라서 자리를 정하는데, 賓席이 북쪽에 있고, 介席이 서쪽에 있고, 主人席이 동쪽에 있었으며, 60세가 된 자는 앉고, 50세가 된 자는 서서 政事와 役事를 들었으며, 60세가 된 자에게는 3豆, 70세가 된 자에게는 4두, 80세가 된 자에게는 5두, 90세가 된 자에게는 6두를 놓는 제도.

24) 『愚伏集』, 稧中爲高年設宴請文(계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여는 데 참석해 주기를 청하는 글).

www.kci.go.kr

> 경우에 진설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문채가 찬란하여 마치 새로 짜서 지은 옷 같기에 마음속으로 몹시 찬탄하면서 스스로 이 세상에 다시없는 보물을 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이어 생각하기를, '주나라 경왕(敬王) 임술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이미 20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니 성사(聖師)께서 착용하던 의복과 띠가 선명하고 완전하기가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인바, 이것은 퇴계(退溪) 선생께서 남겨 놓은 옷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또 생각하기를, '일찍이 풍악(楓嶽)의 정양사(正陽寺)에서 나옹(懶翁)의 사리(舍利)를 보았는데, 승가(僧家)에서는 아주 귀중한 보물로 여기면서 마치 큰 구슬을 보관하듯이 받들고 있었다. 이것은 성의(聖衣)이다. 그런데도 보관해 두는 것이 치밀하지 못하니, 우리 유생들이 저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다.' 하였다. 곁에 어떤 서생이 있다가 연소자에게 양보하여 좌석에 오르라고 하기에, 내가 어찌하여 나이 순서대로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답하기를, "저 사람은 존장가(尊丈家)의 자제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성사(聖師)의 자손이라도 역시 마땅히 나이 순서대로 해야 한다." 하자, 그 사람이 그러겠다고 하였다. 꿈을 깨고 난 뒤에 삼가 이를 기록한다.[25]

3.2 선현 존숭과 선비의 처신

1605년(선조 38) 도남서원을 건립하기 위한 통문(通文)에서 우복은 서원을 건립하는 이유를 선현을 존숭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다. 그것은 마치 선비가 학문을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여럿이 모여 함께 강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듯이, 후생들이 선현의 도(道)를 높이 떠받들고 섬기기 위해서는 서원건립이 가장 중대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조선의 유현가운데 네 분의 출생지가 모두 영남지방[26]에 있어, 영남지방에 서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유독 상주고을에만 서원이 없기에 그들을 존경하고

---

25) 『愚伏集』, 記夢.
"丙辰二月十九日曉 夢至一處 如玉成講堂 言是孔聖奉祀宅 有人持出文錦衣數襲及寶帶披閱以示之 言是孔聖遺衣服 祭則設之云 文彩絢爛 如新織成 心竊竦歎 自幸得見不世之寶 仍念自周敬王壬戌至今已二千餘年 不應聖師衣帶鮮完若此 莫是退溪先生遺衣耶 又念曾於楓嶽正陽 見懶翁舍利 僧家百襲珍藏 如捧拱璧 此聖衣也 而藏裏不密 吾儒之有歉於彼多矣 旁有一生讓年少者上座 余問何不序齒 其人曰 他是尊丈家子弟 余曰 未說尊丈正使聖師子孫亦當以齒 其人唯唯 覺而謹識之."

26) 정몽주(영천), 정여창(하동), 이언적(경주), 이황(안동)을 말함.

www.kci.go.kr

흠모하는 정성을 표할 수 없는 상황을 한탄하고 이런 이유로 낙동강 가에 서원을 설립하여 옛날 '요(堯)' 임금이 돌아가시자 '순(舜)' 임금이 3년 동안 우러러 사모하였는데, 앉아 있을 때면 요 임금의 모습이 담벼락에 나타나고 밥을 먹을 때면 국그릇에 나타났다고 하는 데서 온 말[27]을 상기하며, 우리 또한 선현을 우러러 그리는 마음을 갖고자 한다고 하였다.[28]

실제로 도남서원은 1606년(선조 39) 상주시 도남동에 창건되어, 1797년 사액서원이 되었다가 1871년에 훼철되었다.[29] 처음에는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이연적, 이황을 배향하였고 그 이래로 노수신, 유성룡, 정경세, 이준 등 영남사림의 학맥을 잇는 대표적 학자들이 추가되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이이첨(1560년~1623년)은 1608년 선조의 후사문제(後嗣問題)로 대북・소북이 대립하자 대북의 영수이던 정인홍과 함께 광해군의 옹립을 주장하면서, 당시 선조의 뜻을 받들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류영경 등 소북을 논박한 일이 있는데, 이로 인해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갑산에 유배당했다가 이 해 2월 선조가 갑자기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일약 예조판서에 오르고 이어 대제학을 겸임하게 되었으며, 광창부원군에 봉해졌다.

권세를 장악한 이이첨은 정인홍과 함께 심복을 끌어들여 대북의 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임해군 진(臨海君珒)과 유영경을 사사되게 하는 등 소북 일파를 숙청하였으며, 1612년(광해군 4) 김직재의 무옥(誣獄)을 일으켜 선조의 손자 진릉군 태경(晋陵君泰慶) 등도 죽였다.

이듬해 강도죄로 잡힌 박응서 등을 사주, 그로 하여금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고 무고하게 하여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강등시켜 강화에 안치시키고 김제남[30] 등을 사사시켰다. 이듬해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1617년 인목대비의 폐모론(廢母論)을 발의해 이듬 해 대비를 서궁(西宮)(경운궁. 곧 지금의 덕수궁)에 유폐

27)『後漢書』卷63, 李固列傳.
28)『愚伏集』, 道南建院通文.
29) <http://www.sangju.go.kr/tour/>. 문화유산, 향토사료, 도남서원.
30) 延興府院君 金悌男은 宣祖의 장인으로 仁穆大妃의 아버지.

www.kci.go.kr

하는 등 생살치폐(生殺置廢)를 마음대로 자행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자 이이첨은 가족을 이끌고 영남지방으로 도망가던 중 광주의 이보현(利甫峴)에서 세 아들과 함께 참형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이첨의 죄과를 치리하기 위해 초야에 있던 선비들이 우복에게 통문을 보내 의견을 구하였는데 통문에 대한 답에서 그의 처세하는 선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내가 듣기로 천지간에는 시비를 분별하는 하나의 공론만 존재해야 하며, 그것이 펴져서 위에서 행해지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아래에서 답답하게 막혀버리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불행하여 간사한 자가 궁궐 안에 있으면서 몰래 국가의 권병(權柄)을 훔쳐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깔보아 나라가 전복되는 화가 조석에 박두하였는데도 이른바 한 시대의 공론을 주도하는 자들이 모두 그의 졸개나 심복이 되어 권간(權姦)이 있는 줄만 알고 君父가 있는 줄은 몰라 충성스러운 사람과 간사한 사람을 뒤바꾸어 지목하거나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베옷을 입고 나물밥을 먹으면서 문을 닫아걸고 글을 읽던 사람은 애당초 시사에 대해서는 간여할 필요가 없지만,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관료라면 분연히 일어나 간을 쪼개고 피를 토하면서 대궐에 나아가 임금께 아뢰는 거조를 하되, 직위에서 벗어난 짓을 한 죄와 자신의 몸이 죽는 화조차도 모두 헤아려 볼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천만 부득이한 충분(忠憤)에서 나온 것으로, 한 줄기의 공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 지금은 다행히 조종(祖宗)들께서 묵묵히 도와주신 덕분에 국조(國祚)가 장구하게 되었으며, 서각(犀角)이 물속을 환히 비추듯이 임금께서 명철하시고, 해태(獬豸)가 일제히 떨치고 일어나듯이 삼사(三司)가 한꺼번에 들고일어나 이의첨의 흉계와 비리를 끊는 공론이 조정에서 행해지고 있으니 참으로 성대하다고 할 만 하다. 하지만 초야에 있는 선비들이 그 사이에 발을 끼워 넣고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될 듯하다.
> 이이첨의 죄과를 공론화함에 있어서 만인의 입을 꽁꽁 묶어 놓고서 열지 못하게 하던 날에 그를 성토하는 말을 발하였다면 이는 그만둘 수 없는 곧은 기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은 부화뇌동하는 군더더기 말이 되는 데 불과하니, 이른바 '안에 일정한 체(體)가 없어서 때에 따라서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구구한 나의 견해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감히 정론(正論)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대처하고자 함이니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 라고 하였다.[31]

31) 『愚伏集』, 答左道疏會文.

www.kci.go.kr

이상의 논조를 볼 때 공직에 있는 선비가 공론에 참여할 때는 죽기를 각오하는 충분으로 해야 하지만, 초야에 있는 선비의 경우에는 어떠한 의론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부하뇌동하지 말고 신중히 처세 할 것을 권면하였다.

3.3 의(義)의 추구와 사회풍속의 개혁

우복은 문헌기록에 의해 잘못된 현상을 지적하고 수정토록 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으며 사회풍속에 대해서는 사회개혁 차원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문헌기록을 통한 논증의 한 例로 「고사촬요고오(攷事撮要考誤)」를 살펴보겠다.

『고사촬요(攷事撮要)』는 1554년(명종 9) 어숙권이 편찬한 유서(類書)로 조선시대 사대교린(事大交隣)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일반 상식 따위를 뽑아 엮은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어숙권의 원찬(原撰)에서부터 1771년(영조 47) 서명응이 『고사신서(固事新書)』로 대폭 개정, 증보하기까지 무려 12차에 걸쳐 간행되었다.[32]

「고사촬요고오」는 『고사촬요』의 내용 중 잘못된 두 군데 부분을 『단종실록』을 근거로 지적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록에 의하면 계유년(1453, 단종 1)에 세조는 황보인,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이용)을 추대한 죄를 다스리고, 정난

"嘗聞天地間自有一箇公論。… 而伸而行於上則治。屈而鬱於下則亂。故國家置論思之職。諫諍之官。使之主一國之公論。而伸一代之直氣。其或不幸而姦人在內。陰竊國柄。壅蔽聰明。絶滅倫類。邦國顚隮之禍迫在朝夕。而所謂主一時公論者。皆爲之瓜牙腹心。知有權姦而不知有君父。忠邪易指。鹿馬貿形。則布衣藿食閉門讀書之人。初無預於時事。而愛君憂國之誠。憤世嫉邪之志。有不自勝於仰屋之餘。起而爲刳肝瀝血叫闔排雲之擧。出位之罪。殺身之禍。皆有所不暇計。斯誠出於千萬不得已之忠憤。而要以扶持一脈之公論而已。夫以爾瞻之稔惡非一日矣。國之不亡於其手蓋亦幸矣。… 顧今祖宗默佑。國祚靈長。四聰開悟。照水之犀方燃。三司竝發。觸邪之豸齊憤。彼其手脚盡露。腰膂將絶。公論之行於朝廷。可謂盛矣。草野之士似不當側足其間。以架屋下之屋也。蓋爾瞻之惡一也。而發之於萬口皆拑之日。則爲不容已之直氣。論之於今日。則不過爲雷同之贅言。所謂中無定體。隨時而在。未知僉意以爲何如。區區傾倒。非敢立異於正論。欲以求教於高見。幸勿視爲怯懦。細入思量。辱與反復之則幸也。竝惟盛諒。

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권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7).

www.kci.go.kr

공신(靖難功臣)에 정인지 등 36인을 훈호(勳號)하였으며, 그로부터 2년 뒤인 을해년에 선위(禪位)를 받았다. 그러므로 『고사촬요』에서 이 일에 대하여 "기미를 살펴서 즉위하고는 그날 밤에 황보인 등을 주살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을해년(1455, 단종 3) 윤6월에 선위를 받았다. 9월에 좌익공신(佐翼功臣)에 계양군(이증) 등 41인을 훈호 하였고, 다음 해인 병자년 6월에 사예 김질, 우찬성 정창손이 상변(上變)함에 따라 사육신(死六臣)들을 모두 죽였다. 7월에 좌익 3등 공신 정창손을 2등 공신으로 올리고, 군기시 정 김질을 좌익공신 3등에 훈호 하였다. 그러니 『고사촬요』에서 "을해년에 김질이 상변하였으며, 이증 등을 녹훈하였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33]

우복은 강릉(江陵) 고을 사람들에게 유시하는 방문(榜文)에서 의로움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는데, 강릉 고을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문을 통하여 네 가지의 잘못된 사회풍속의 지적과 개혁방안을 거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34]

1) 본관이 같으면 혼인할 수 없는 일이니, 앞으로는 서로 혼인하지 말 것. 조(祖)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교체하고, 종(宗)은 아래로 내려가서 교체하여 끝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된다. 그러나 그 처음을 따져 보면 한 사람의 몸인 것이다. 이 때문에 『예기』「곡례(曲禮)」에서는 "동성 간에는 혼인하지 않는다.[不娶同姓]" 하였으며, 또 「대전(大傳)」에서는 "비록 백대가 지난 뒤에라도 혼인하지 않는다.[雖百世 婚姻不通]" 하였다.

2) 아버지 생존 시, 어머니 상(喪)을 3년으로 하는데 1년으로 할 것. 『예경(禮經)』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복(朞年服)을 입는다.' 하였다. 성인께서 이렇게 예를 제정한 것은 어머니에게 박하게 하여서가 아니다.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있을 수 없고 땅에는 두 명의 주인이 있을 수 없으며, 집안에는 두 사람의 존귀한 분이 있을 수 없으므로, 아버지에게 압존(壓尊)되어서 어머니에 대한 정을 다 펴지 못하는 것이다.

3) 친구가 상을 당하였을 경우 술을 빚어서 마치 손님을 초청하는 것처럼 하거

33) 『愚伏集』, 攷事撮要考誤.
34) 『愚伏集』, 榜諭江陵一鄕文.

www.kci.go.kr

나, 손님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 제사를 올리는 것 즉, 상가에서 술을 마시며 공회(公會)를 열기까지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다. 앞으로 상이라는 것은 슬픔을 위주로 하고, 제사라는 것은 공경을 위주로 할 것. 그래야만 주인이 된 자는 참으로 풍교(風敎)의 죄인이 되는 것이어서 본디 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으며, 손님이 된 자도 상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옛날에 이천(伊川) 선생께서 모부인(母夫人)을 장사 지낼 적에 주공숙(周恭叔)이 빈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는데, 조문객 가운데 추위에 덜덜 떠는 자가 있었다. 이에 주공숙이 그에게 술을 주기를 청하자, 이천 선생이 말하기를, "자네는 다른 사람을 의롭지 못한 데에 빠뜨리지 말라." 하였다. 무릇 날씨가 추운 때를 당하여 술을 마시는 것도 오히려 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여겼다.

4) 장사 지내는 데에 모이고 제사 지내는 것을 보는 날에 이르러서 직접 물품을 싸 가지고 가서 주는 것은, 주는 자는 상을 돌보아 주는 정성이 없는 것이고 받는 자는 상을 당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혐의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됨이 큰 것이다. 지금부터는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부의(賻儀)를 전해 주는 것은 반드시 날짜가 되기 전에 실어 보내고, 회장(會葬)하는 자는 묘지에 올라가서 하직인사를 하거나 반곡(反哭)을 한 뒤에 흩어지며, 제사를 참관하는 자는 제사가 끝나면 바로 파하기를 한결 같이하여 잘못된 풍습을 그대로 답습해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복은 장옥(場屋)의 사자(士子)들에게 유시(諭示)하는 방문(榜文)에서 전국에 있는 벼슬하지 않은 선비들이 학문을 연마하지 않아 생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거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공고하여 그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켰다. 士子들의 문제점과 과거시험의 혁파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5]

>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에서 사서의(四書疑)와 오경의(五經義)를 시험 보여 생원(生員)을 뽑는 것은 대개 경술(經術)로써 선비를 기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이 평상시에는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시렁위에 버려둔 채 연구하며 깨닫기에 힘쓰지 않고 있다가, 과거시험장에 와서는 글을 지을

35) 『愚伏集』, 榜諭場屋士子文.

www.kci.go.kr

> 줄 모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거나 베껴 써서 요행으로 합격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유사(有司) 측면에서 볼 때는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6, 7명밖에 안된데도 그들 안에서 뽑아야 하니 이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가?
> 이러한 폐습을 혁파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을 공고하니 이후로는 절대로 예전의 폐습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
> 1) 보여 준 자나 베낀 자를 모두 낙방시킬 것이며, 잘 짓고 못 지은 것 을 막론하고 스스로 지은 자는 가려서 뽑을 것이다.
> 2) 인원수가 차지 않을 경우에는 경의(經義)를 가지고 선발할 것이다. 제 생들 가운데 경의에 능통한 자는 경의를 편(篇)의 주된 뜻으로 삼아 글을 지으라.
> 3) 시문(詩文)을 지을 때 제목의 뜻을 두 짝으로 쓰는 것[雙頭破題]뿐만 아니라, 단지 시제(試題)의 뜻만 가지고 토론(討論)하고 연역(演繹)하 되 논(論)을 쓰는 체(體)와 같이 지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잘못된 풍속일지라도 효(孝)를 권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우복은 1609년(광해 원년) 나이 47세에 동지사(冬至使)[36]가 되어 중국으로 사신 갈 때 부사 여우길에게 들은 이야기가 풍속에는 벗어나는 이야기긴 하지만 효를 권장할 목적으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다.[37]

12살 먹은 노응원은 그의 아버지 병환에 약으로 쓸 목적으로 자신의 무명지(無名指) 한 마디를 잘라 약으로 달여 먹였지만 아버지는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다. 이 아이가 손가락을 자른 이유는 '제가 듣건대 부모의 병에는 자식의 뼈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손가락을 자른 것입니다. 어찌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았겠습니까.'이다.

이에 우복은 "그의 나이가 아직 어려서 지식이 있지 않은데도 능히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였으니,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천성에서 얻은 자가 아니면, 어찌 능히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으로 본다면 사람들 가운데 혹 어버이가 병이 들었는데도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보이지 않고 약을 지어 드리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죽을 적에도 임종하지 않고 상을 당하여서는 애통해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런 자들은 유독 이런 본성(本性)이 없는 것으로, 비록 온몸을 토막토막 잘라 죽인다고 하더라도 저 노응원에게 사죄할 길이

36) 조선시대 동지에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던 사절 또는 파견된 사신.
37) 『愚伏集』, 斷指者說.

www.kci.go.kr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3.4 호국방책과 무인의 자세

우복이 관직생활을 하던 시기는 선조・광해군・인조대로서 이 시기는 붕당(朋黨)이 나누어져 서로 대립 갈등한 당쟁기(黨爭期)였으며 게다가 왜란(倭亂)과 호란(胡亂) 등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당인으로서의 정치적 부침을 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임진왜란을 당해서는 어머니와 동생을 잃는 아픔도 겪었다. 이러한 그였기에 호국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복은 북쪽 오랑캐들이 대방(大邦)인 명나라에 대항하는 것을 보고 불시의 침략에 대비한 호국방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성곽・요새 구축과 양곡비축을 위한 공론을 모았다.[38]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나에게 대비책이 있는 것을 믿으라.” 하였다. 오늘날 적들을 기다리는 대비책으로 산성(山城)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다. 낙토(樂土)가 가까이에 있고 계책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위급한 사태가 닥쳤을 때 지시하지 않아도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이며, 각자 늙은 어버이와 어린이들을 데리고 느긋하게 산성 안으로 들어가 함께 지키면서, 몽둥이를 가지고 성 위에 서 있다가 아래로 내려 보면서 적들의 정수리를 내려치면 될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산성은 형세의 장대함과 수량(水量)의 풍부함으로 볼 때 최적의 요새지가 분명하니, 평지에 그대로 앉아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보다는 이곳에 요새를 짓고 험고한 절벽에 의지해 있으면서 편안하게 휴식한 군사를 거느리고 피로에 지친 적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곧 전승(全勝)을 거둘 수 있는 길이다.

한(漢)나라 가의(賈誼)가 말하기를 “양곡을 쌓아 두는 것은 천하의 대명(大命)이다. 곡식이 많아서 재정이 여유로우면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하겠는가. 이것을

38) 『愚伏集』, 城山山城收穀文.

www.kci.go.kr

가지고 싸우면 승리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지키면 단단할 것이다." 하였다.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 계책을 한다면, 오직 양곡 쌓는 것을 돕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다. 한 삼태기의 흙이 쌓여 산을 이루듯이 적은 것을 쌓는 데에서 큰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략 경내의 민가 숫자를 가지고 거두어 모을 곡식을 헤아려 보면, 많을 경우에는 천, 천5백 섬이 될 것이며 적을 경우에도 7, 8백 섬을 밑돌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염초(焰硝)와 무쇠를 사들이고 공장들의 노임을 준다면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사대부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난리가 일어나면 이에 차마 충(忠)을 잊고 의(義)를 팽개친 채 처자식을 데리고 들짐승처럼 도망쳐 숨어 구차스럽게 수풀 사이에서 목숨을 부지한단 말인가? 옛사람들은 오히려 의리에 어두운 채 목숨을 부지하기 보다는 의리를 명백하게 드러내고서 목숨을 바치려 하였다. 더구나 지금 목숨과 명예 양쪽 다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계책을 버려두고 위험과 치욕 속에 반드시 죽을 길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또 어떻다고 하겠는가? 이처럼 사대부에게는 충(忠)과 의(義)로서 분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도내의 선비들에게 통유(通諭)하는 글에서 역신 이괄의 반란군에 대한 대비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39]

> 하나. 의병(義兵)을 모집할 때에는 오직 정예로운 장정들을 뽑기를 힘쓰고 구차스럽게 숫자나 채우지 말라. 또한 오직 사리를 알아듣도록 잘 타이르기[開諭]를 힘쓰고 억압하여 억지로 끌어들이지 말라.
> 하나. 의병을 모집할 때에는 담략이 있어 용감히 싸우다가 죽을 자를 상(上)으로 삼고, 팔 힘이 세어서 활을 잘 쏘는 자를 다음으로 삼고, 적중(賊中)에 능히 출입하면서 적정(敵情)을 탐지할 수 있는 자를 다음으로 삼고, 날래서 잘 달리는 자를 다음으로 삼으라.
> 하나. 각 고을의 사포수(私砲手)를 각별히 찾아내어 우선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하나. 각 고을의 산에서 사냥을 하거나 약초를 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山尺]을 찾아내, 그들로 하여금 힘을 바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 경우 전투의 쓰임에 관계됨이 포수(砲手)들에 못지않을 것이다.
> 하나. 먼저 충실하고 사려가 있어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감당해 낼만한 사람

39) 『愚伏集』, 通諭道內士子文.

www.kci.go.kr

몇을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평소에 서로 믿고 지내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부대를 편성하게 하라. 그런 다음에야 싸움에 임해서 한마음으로 사생간에 서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이것이 옛사람들이 군대를 다스리던 법이다.

하나. 의병을 모았더라도 군량이 없으면 스스로 무너지고 흩어지는 법이니, 오직 지성으로 개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힘이 미치는 바에 따라서 내게 하되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말라.

하나. 조정에서 부자(富者)들에게 신용을 잃은 것이 많아, 곡식을 쌓아 놓고 있는 집이더라도 내놓기를 바라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단코 위급하고 어려운 날에 곡식을 취하고서 난리가 평정이 되고 난 뒤에는 상을 주지 않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을 부자들에게 효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義를 중하게 여겨 모든 자산(資産)을 내어 모집에 응하게 하라.

하나. 충의의 마음을 고동(鼓動)시키는 것이 참으로 큰 근본이 되나, 이해(利害)를 가지고 개유하는 것도 역시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천도(天道)는 순응하는 자를 돕는 법이고 사직(社稷)은 영묘하고 오래가는 법인바, 이 역적들이 끝내 목을 바치지 않을 리가 없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는 양민(良民)이 되고, 난리를 일으킨 자를 따르는 자는 역귀(逆鬼)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을 여염의 백성들에게 널리 효유하여, 순응하고 거역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라.

하나. 정예롭고 용감하여 과감하게 죽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상을 준다는 뜻도 아울러 알려도 무방하다.

하나. 앞에서 말한 각 조목들은 단지 대강만을 든 것으로, 오직 여러분들이 일에 임하여 사려를 짜내어 잘 조처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나. 좋은 계책이 있으나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조처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일일이 당직에게 알리되, 어떤 사실을 상관에게 공식적[報狀]으로 알리지 말고 단지 상관에게 여쭙는 글[稟目]만으로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

반란을 일으킨 후 패한 이괄이 수구문(水口門)을 통해 밖으로 달아났다가 이천(利川)에 이르러서 그의 수하인 기익헌과 이수백 등에 의해 참수당한 글[40]과 이괄의 난(亂) 때 순직한 무인(武人) 이사주와 무변(武弁) 박영신의 죽음에 대해 들은 이야기[41]를 통하여 무인(武人)은 오직 나라를 위해 의롭게 죽는 것을 덕목으로 여겼다.

40) 『愚伏集』, 雜記.
41) 『愚伏集』, 記聞.

www.kci.go.kr

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14편의 잡저를 통하여 16세기말부터 17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우복을 지배하고 있던 그의 시대정신을 고찰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자는 항상 학문을 좋아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말며, 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즉시 깨닫고 반성하여 종신토록 다시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행방법으로 항상 겸손하고 공손하며 성실할 것을 권면하였으며, 노인 공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 공공장소에서 좌석에 앉을 때 나이 순서대로 앉도록 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로 삼았다.

둘째, 전례에 있어서는 선현(先賢)들을 존숭하여 섬기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후생들이 선현의 道를 높이 떠받들고 섬길 수 있도록 서원건립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공론에 참여할 때의 선비의 처신에 대해 공직에 있을 때는 죽기를 각오하는 忠憤을 갖고 해야 하지만 초야에 있을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 부화뇌동하지 말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면하였다.

셋째, 문헌기록에 의해 잘못된 현상을 지적하고 수정토록 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으며 잘못된 사회풍속에 대해서는 사회개혁 차원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 『고사촬요』의 내용 중 잘못된 두 부분에 대하여 단종실록을 근거로 지적하였다.
2) 잘못된 사회풍속을 지적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본관이 같으면 서로 혼인하지 말 것
   나) 아버지 생존 시, 어머니 喪은 1년으로 할 것
   다) 喪은 슬픔을 위주로 하고, 제사는 공경을 위주로 할 것
   라) 賻儀와 會葬, 제사를 참관 할 때에는 禮文에 의거하여 할 것
3) 전국에 있는 벼슬하지 않은 선비들이 학문을 연마하지 않아 생긴 문제점을

www.kci.go.kr

지적하고, 과거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공고하여 그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켰다.

4) 잘못된 풍속일지라도 孝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활용하기도 하였다.

넷째,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지책으로 성을 축조하여 요새를 구축하고 양곡을 비축할 것과 사대부에게는 忠과 義로서 분발할 것을 강조, 목숨과 명예 양쪽을 다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계책에 앞장서도록 독려하였다. 내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병모집과 군량 및 자금 모금,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또한 武人은 오직 나라를 위해 의롭게 죽는 것을 덕목으로 여겼다.

<참고문헌>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20년 계미(1883. 광서 9), 좌목.

『愚伏集』 권14 雜著.

『愚伏集 別集』 권10, 권12.

『後漢書』 卷63, 李固列傳.

고영진. “17세기 전반 남인학자의 사상: 정경세・김응조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8(1992).

金圻彬.『한국문집총간해제』.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서인한. “인조초 복제논의에 대한 소고.”『북악사론』 1(1989). 95-137.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Ⅱ): 여강서원 치폐전말.”『퇴계학과 한국문화』 45(2009). 311-3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우복집』.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www.kci.go.kr

원, 1977.
우복선생기념사업회 편.『우복정경세연구』. 서울: 태학사, 1996.
우인수. “우복 정경세의 정치사회학적 위상과 현실대응.”『퇴계학과 유교문화』 49(2011). 99-136.
윤천근.『실천적 예학자 정경세』.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7.
이영춘. “잠야 박지계의 예학과 원종추승.”『청계사학』 7(1990).
장승구. “우복 정경세의 철학과 경세론.”『퇴계학과 유교문화』 50(2012). 1-28.
최재목. “우복 정경세와 상주지역의 퇴계학맥.”『한국의 철학』 28(2000). 1-30.
최정묵. “우복 정경세 성리설의 기본입장과 율곡학 비판.”『율곡사상연구』((사) 율곡연구원) 14:0(2007). 97-113.
<http://www.sangju.go.kr/tour/>.

www.kci.go.kr